

신념의 실현_곽수의 “빛과 시간”

곽수는 회화가 눈을 통해 본 사물을 보고하고 기록하거나 이에 반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념이나 감정, 비물질적인 대상을 재현하기 위한 것임을 믿는다. 이에 관해 한국의 김복영 미술비평가는 그녀의 글 ‘마음의 빛: 예술과 사랑이야기(Light in the Heart: A Story of Art and Love)’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어느 날 시청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한 시각장애인을 보았다. 나는 이 남자가 비록 물리적인 빛을 볼 순 없지만 내면을 통해 빛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이러한 내면의 빛, 그의 마음속의 빛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 인용문은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려준다. 첫째, 곽수는 회화의 물질적인 형태를 통해 비물질적인 빛을 포착하고자 했다. 둘째, 곽수에게 있어서 빛은 정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녀는 <수확(Harvest)>(2008)이 희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아버지의 쌀농사는 흉수로 인해 여러 번 실패를 거듭했으며 10번째 계절 만에 좋은 수확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마른 밀의 줄기를 그림 위에 붙인 후 나중에 이를 끊어 떼어내 흔적만을 남긴다. “나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캔버스에 남기는 흔적을 좋아한다.”고 그녀는 말한다. 즉 그녀는 자신의 회화가 일종의 기억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작품에는 그녀 작업의 역사가 흔적으로 남아있으며 마찬가지로 오래 전 풍작이 흔적이 암시되어 있다. 더군다나 기억에 관한 이 작품은 돛단배(sailboats)에 관한 인상을 표현한 또 다른 작품인 <여행(Journey)>(2008)이나 하늘에서 바라본 육지의 모습을 표현한 <구름의 빛(Cloud Light)>과 여러 점에서 유사하다. 그녀의 작품은 빛과 빛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기억, 희망, 그리고 감정 등과 같이 비물질적인 것을 실재화하고자 하는 탐색을 보여준다.

이러한 작가의 접근이 잘 드러난 작품이 <빛과 시간> 시리즈의 일부인 <새로운 하늘(New Sky)>(2008)이다. 작가는 2002년 제작한 이 작품을 2004년 전시를 위해 한 차례 수정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수정해 현재의 모습을 창조했다. 이 작품에서 태양은 우측 절반을 드러내며 광선의 발산은 한국어 성경에서 잘라낸 성경구절을 이용해 표현된다. 옅은 파란색으로 표현된 하늘이 화면을 지배하며 여기에는 틈이 잘려져 있다. 작가는 아래 쪽 캔버스가 드러나도록 캔버스를 벗겨내며 여기에 옅은 파란색을 칠한다. 작가의 설명에 의하면 <빛과 시간(Light and Time)> 시리즈에서 그녀의 관심사는 개인적인 것을 넘어 종교와 예술이라는 보다 큰 주제로 발전한다. 작가는 자신의 신념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주제 상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신작에서 가장 선호하는 점은 “어떻게 사실적인 것을 구현했는가.”하는 점이다. 이러한 언급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은 곽수의 최근 회화작품을 그녀가 초창기 때 이루고자 한 것의 정점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초창기부터 작가는 어떻게 빛이 물, 하늘 등의 대상을 그림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했다. 작가는 비물질적인 대상에 물질적인 형태를 부여하며 자신의 사고, 감정, 정서 등을 표현한 그림을 그려왔다. 초창기 작가의 작품은 매우 사적인 문제를 다루었지만 한 인간으로 성장하며 이를 초월해 보다 보편적인 문제와 주제를 다루었다.

작가는 1992년 이후 캔버스를 자르거나 접는 방식으로 작품을 창조해왔다. 예를 들어 <수확(Harvest)>이라는 작품에서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이용해 온 3인치 크기의 평면 내에 또 다른 태양의 모습인 노란색 원을 표현한다. 이 작품에서 태양의 원형부분을 자른 다음 잘려진 캔버스날개를 우아한 S자 형태로 아래쪽을 향하도록 붙인다. 이 결과 십자형태의 프레임이 드러난다. 십자형 프레임의 수직보 하단은 캔버스 위에 칠해져 있으며 상단 절반은 틈이 벌어진 태양에 의해 드러난 실제 캔버스 프레임이다. 과거 회화작품에서 접히고 잘려진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으나(miniscule), 최근작 <새로운 하늘>에서 보듯이 가늘고 길게 잘린 틈은 전체 거대한 캔버스에 절반 이상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작가는 최근 작품에서 캔버스의 일부를 자르고 벗기며 꿰매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보여준다. 그림의 표면을 잘라내 틈을 내는 방식은 회화와 조각 장르를 연계시키는 잘 알려진 기법이다. 엘리자베스 수스만은 이러한 광수의 작업방식을 루시오 폰타나의 방식과 비교한다.<광수: 치유의 빛>준 켈리 갤러리, 2004)

이러한 점은 그녀의 수채화 작품인 <파란 태양(Blue Sun)>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원형의 태양은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풍부하게 채색되어 있다. 작품에 드러난 깊고 복합적인 색채(deep complex tones)는 그녀의 중첩된 회화방식에 기인한다. 태양이 발산하는 광선은 30여 개 이상의 베인 자국으로 표현되어 있다. 잘린 틈들은 세 부분으로 나뉘며 주의 깊게 일정한 간격으로 나있어 조화로워 보인다. 폰타나가 캔버스를 벤 후 그대로 남겨둔 반면 광수는 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베인 자국을 폭넓게 활용한다. 화면을 벤 후 시간이 흐른 후 자연스럽게 틈이 벌어지도록 놓아둔다고 말한다. 이러한 잘린 틈 사이의 공간은 아름다운 원형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녀의 회화작품에 입체적인 요소를 부여한다. 필자는 광수의 작품이 아름답고 잘 만들어져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내 경험에 비추어(예술사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어) 시간의 시련을 버틴 후 살아남은 작품은 가장 잘 만들어진 작품이며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작품이다. 기교와 미는 관람객의 눈 속에만 존재하는 것인지 모른다. 우리는 붓 숨씨와 미를 절대적인 것으로 정의할 수 없지만 여전히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광수의 예술이 풍요로운 미래를 담지하고 있다고 믿는다.■

작가 광수는 부산에서 태어나 성장기를 보낸 후 23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세인트토머스 대학 미술과와 시카고대학교 미술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국내 선화랑과 뉴욕 준 켈리 갤러리, 얼렌 킴 퍼피 갤러리, 워싱턴 한국공보원 메릴랜드 대학 전시관, 뉴욕 한국 문화원 갤러리 코리아, 웨드나사 갤러리, 엘렘헨스터 대학 전시관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브로클린 뮤직 컨서봐토리 여름>전, <헨리 스트리트의 미술>전, 링컨센터와 록 갤러리에서의 <50명 50인의 시각>전, 시카고 쟈 시세로 갤러리에서의 <폭발하는 기쁨의 추상화>전, 아르헨티나 아트템포 갤러리에서의 <미국에서 온 미술>, 미국 과학진흥회관에서 <과학과 테크놀로지에 연결된 미술 10주년 기념전>, 뉴욕 뉴월드 아트센터에서의 <아시안 여류화가>전,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의 <미국현대미술>전, 워싱턴 여성미술관에서의 <예술을 위한 예술>전, 서울시립미술관에서의 <2003신소장품>전, 공주미술관에서의 <예술과 복지, 국제디자인 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2006 신소장품전> 등 다수의 기획전에 초대되었다. 현재 미국 워싱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여타 미술관과 미국의 공공기관들에 소장되어 있다.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7일까지 뉴욕 준 켈리 갤러리(June Kelly Gallery)에서 개인전이 개최되며, 국내의 선화랑, 선아트센터에서는 10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초대전이 열릴 예정이다.

샌디 키타(Sandy Kita)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채텀대학 미술사 교수. 선임학자